



오륙도 글밥

문화골목 10년의 단상



최 윤 식

문화골목 대표·건축사

2008년 6월 20일 경성·부경대 인근에 문화골목이 문을 열었다. 필자는 속칭 '집값대 건축쟁이'였던 대학시절 동네 이룬 상경의 꿈을 직장이나 서울로 잡아서 이루고자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얼마 후 고향 친구와 부모, 그리움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짧은 시절 서울에서 본 문화는 부산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차원이었다.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공간'이라는 곳은 더욱 그랬다. 그때 나도 부산에도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졌는데 30여 년의 세월을 지나 경성대학교 앞의 주택 몇 개를 뜯어 고쳐 조그마한 복합문화공간을 열게 되었다.

되었다.

그때만 해도 이쪽 동네는 대부분 주택가 인지라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았고 이렇거나 발전(?)하리라 예상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 부근이 부산문화의 중심지가 되리라는 확신은 갖고 있었다. 우선 대학이 5곳이 있었고 부산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기념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영화관, 교통 방송국, 지근거리엔 KBS, MBC 등 방송국과 단독주택과 아파트, 옹호동 권역까지 고려하면 타당한 분석이었다. 더군다나 2011년 3월에 부산 예술회관까지 들어섰으니 이미 이 일대는 부산 문화의 자산들로 충만한 곳이었다.

2008년 그해 말 문화골목은 부산다운 건축상 최초의 대상(이전에는 대상이 없었음)을 수상하게 된다. 이는 상당히 미미한 일로써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품을 보면 서울이나 외국의 디자인과 기술, 자본으로 건설된 건물(신세계 백화점, 영화의 전당, 누리마루 등)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에 비해 부산 사람이 디자인하고 부산 사람이 짓고 부산 사람이 운영하는 부산다운 건축에 그나마 근접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이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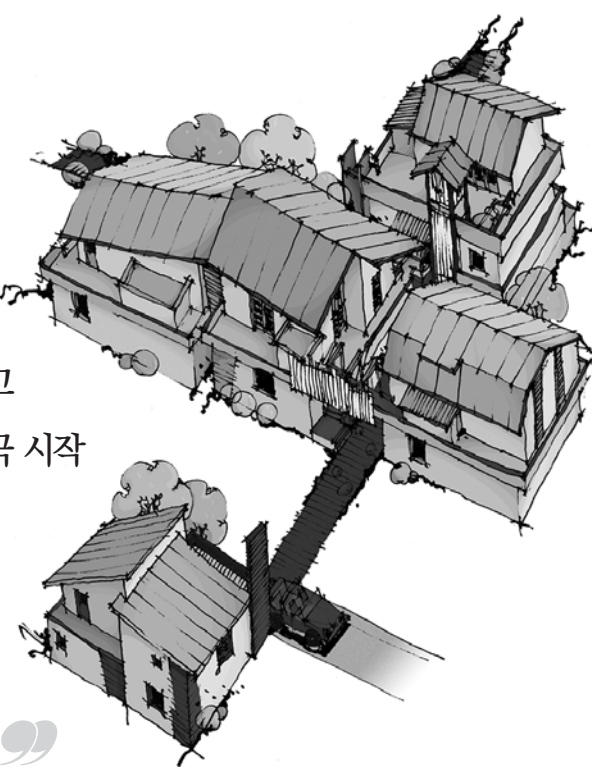
극심한 자금난 버텨내고

최근부터 문화활동 적극 시작

남구 문화인프라

융화하기에 따라

부산 문화의 중심 우뚝



”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에 따른 변화를 겪으며 건축, 문화계의 관심을 받았는데 수많은 잡지, 방송의 취재 대상이 되었고 TV, 영화촬영은 물론 홍콩, 일본의 매스컴에서도 취재해 올 정도의 각광을 받았다. 네이버 선정 '부산 가 볼만한 곳 TOP6'에 선정되는가 하면 롤리플래닛에도 수 년 전부터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부산 자체에서는 크게 인지도가 높지 못해 어느 부유한 호사가의 문화적 장난으로 오해하거나 개인적 상공

간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기획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전주, 대구,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도심재생의 모델로 견학 온 것도 10여 차례이며 관공서 담당자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제도권 차원에서 홍보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도 몇 차례 있었으나 늘 그때왔듯 법규에서 막히고 관청에서는 새로운 실적에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 문화골목은 '버티기'에서 벗어나

움직이기로 했다. 우선 문화골목 대장(대표)인 필자는 인문학 강의, 신문 기고, 근대건축 드로잉전 등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동서대 학생들과 연계해 이틀간 문화골목에서 베품시장을 열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마실'이라는 도심 투어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진행한지 1년이 되었는데 호응이 좋아 8월부터는 부산시 건축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평일반을 확장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겨울방학 때 골목건축제를 개최해 도시, 건축, 실내디자인과 학생들을 선발하고 3박 4일 강의, 토론, 전시, 발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부산의 미래를 심어주는 캠프를 열고 있다. 올 겨울이 세 번째인데 그 동안 승효상, 류춘수 건축가, 김용택 시인, 일본 건축가 후무모리 등 유명 강사를 초빙했다.

단언컨대 우리 남구만큼 문화인프라를 가진 곳도 부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말한 여러 기존 문화시설과 대학문화, 솟아져 나오는 기성세대들의 문화적 욕구를 적절히 융화 발전시킨다면 남구가 부산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판 재 정비, 도로 재포장 같은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행정은 바라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단체를 지원, 정착시키고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버금가는 실질적 활동을 유지하며 청년, 장년, 노년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발거리, 할거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새로운 정체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정책을 기대해 본다.



<270>



■ 독자에서이

남구예찬... 그 영원한 노스텔지어

남쪽은 어미의 품 같은 곳. 식물 은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먼저 싹을 틔우고 더 빨리 성장하여 간다.

나는 커서도 항상 어미 품이 그리웠고 그럴 땐 사는 곳이라도 남쪽을 동경하곤 한다. 투자, 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남구 용호동'에서 살고 있다. '천 칸이나 되는 큰 집이라도 잠을 자는 자리는 여덟 자뿐이고, 좋은 발이 만 이랑이나 되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겨우 두 되뿐이다.'라는 옛 글이 떠오른다. 하늘아래 어디로 간들 숨 쉬지 않고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함께 살아 숨쉬기 위해선 내 고향같이 아늑함을 주는 곳을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느 한 곳에 깊은 정을 주지 못하는 철세의 여성생활이 싫어 난 항상 뒷산을 골똘 왔으며 이제 그 보급자리 속에서 아늑함으로 발을 꼭 뻗어 보기도 한다.

우리 남구에는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와 같은 학문의 전당이 있고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처럼 문화, 예술 전당도 있다. 물의 산수화인 오륙도는 부산항 관문이다. 용호동 해안 일대 일반인 '이끼대' 풍류에 관한 기록하며 신선이 내려왔을직한 '신선대'가 있어 남쪽 풍광에 한 몫을 더한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 숲의 고요함을 깨고 새소리로 현을 튕길 때, 파도가 바위를 만나 회개 부처지는 바다에선 주황 금빛 아침 해가 솟고 갈매기가 은빛 날갯짓으로 허공을 거른다. 소리, 색, 역동의 하모니. 현자가 찾는 산과 지가가 갈망하는 바다. 푸른 산, 푸른 바다라 하나 색의 농도는 확연히 구분되어 조물주가 풀어 놓은 대자연의 수채화다.

바다가 그리워질 때도 산으로 오

른다. '장자자'에 오르면 발밑에서 푸른 물결이 출렁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숲으로 들어서자 문인들의 시화가 걸려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함. 상큼한 공기도 감자하거늘, 책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신선한 느낌의 글들이 숲의 바람과 함께 밀려오니 공기처럼 마셔본다.

고향 맛이 그리울 땐 동네 전통시장으로 간다. 노점상 할머니들을 보면 내 집안 어른 같고 맛깔스럽게 옛 맛을 내는 반찬거리를 살 때는 어머니 손길같이 울컥해온다. 짹짹한 삶만 살아오면서 파는 쪽을 향하여 언제 이렇듯 애정을 표시해 본적이 있었었나.

이렇게 나의 동선은 거의 남구 용호동에 맞추어져 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한결같이 품고 있는 고향. 꿈에도 나타나서 한 번씩 베갯잇을 적시게 하는 그곳.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고향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모든 문명이 도시에 몰려 있으니 대개는 도시가 제2 고향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비로소 내 삶도 완성되는 것. 그 동안 떠돌았던 세월의 조각과 그로인한 회한. 나는 더 이상 허상을 좇아 이니스프리로 가지 않겠다. 이제 '남구'는 나의 고향이자 말벗이 되고 글벗이다. 우리를 마음 속 영원한 노스텔지어, 남쪽. 그 하늘 밑에서 고향에서 사는 듯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조현훈
(남구문화협회
회원·문장2동
인지 회장)



■ 독자투고

고부(姑婦)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을 예전처럼 자주 듣지 못한 것 같다. 관심이 없어서일까. 두 아들을 가진 나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된다. 큰 아들한테 며느리 감을 소개 받았을 때 씩 마음에 차지 않았지만 어찌될지 몰라 그냥 예뻐게만 보려고만 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아가씨의 가식 없는 마음씨와 말씨, 그리고 숨쉴까 좋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러지 보석처럼 빛나 보였다.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결혼을 권유했고 독신을 주장하던 아들도 한결같은 아가씨의 착한 내면에 꼬리를 내리고 인연을 맺기에 이르렀다.

딸을 키워보지 않아 시어머니의 근성이 드러날까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나의 삶이란 경험과 감성을 토대로 아들을 키우며 쏟은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표현하며 항상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며 정찬할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고부간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려 애써야겠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쉽지 않았지만 갈등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장관순(감만2동 주민)

남구도서관 무료 영화상영

*영화관람은 선착순 무료 입장
☎607-6574

영 화	상영일	상영시간 및 장소
남아. 그 감을 건너지 마오	7. 25.	오후 7시 2층 시청각실
인어공주	8. 5.	매주 일 오후2시, 남구도서관 2층 시청각실
장난감이 살아있다	8. 12.	
마이펫 오지	8. 19.	
아마조니아	8. 26.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감만동 자락에서 28년간 일군 국내 최초의 나병원인 상애원(옛 부산외대 캠퍼스 주변) 모습.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선교사 맥켄지



김성호의
핑설수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로 왔습시다..." 43년 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 병 환자를 돌본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다룬 공익광고 내레이션이다. 지난해 이들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해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영화관과 TV에 방영됐다. 이후 두 수녀가 머문 소록도 사택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흥군청은 조례를 제정해 두 수녀에게 매달 1004달러(120여 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곧 두 수녀를 기리는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될 모양이다.

알다시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야 고맙기 그지없다. 그런데, 소록도의 두 수녀 못지않게 한센인들에게 모든 것을 퍼준 '외인'이 우리 남구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주민은 극히 드물다.

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10년 2월21일, 45세의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James Noble Mackenzie, 1865~1956)가 가방 하나를 들고 부산항에 닿았다. 식인풍습이 남아 있던 남태평양의 산토섬에서 15년간 선교활동을 할 막내과 다음 선교지로 부산을 택했다.

부산에 온지 2년 뒤인 1912년 5월, 맥켄지는 감만동 나병원인 상애원(相愛院) 원장으로 부임한다. 상애원은 미국 선교사가 1909년 감만동 자락(옛 부산외대 캠퍼스)

에 세운 국내 최초의 나병원이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

맥켄지의 헌신으로 나병원은 일대 전기를 맞는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마저 자식을 외면해 나병을 '천형(天刑)'이라 부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맥켄지는 이들을 조건 없이 품었다. '상애원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부산·경남 지역 나환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돌았다. 개원 당시 5명에 불과했던 환자는 600명으로 늘어났다. 병원 주변으로 환자 숙소가 하나둘 생겨 상애원은 거대한 마을로 발전했다. 맥켄지는 나환자들에게 건축과 토목기술을 가르쳤고 마을 안에 4년제 보통학교(명신학원)도 건립했다. 그는 '나병환자의 아버지'로 칭송받았다. 진료부터 의식주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 운영 경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호주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을 구하느라 맥켄지는 늘 골머리를 앓았다.

초기 상애원과 맥켄지에 우호적이던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임박하자 그를 추방하기에 이른다. 1938년 2월 18일, 철순을 출책 낀 맥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항을 통해 홋카이도 호주로 돌아갔다. 부산에 온지 정확히 28년 만이었다. 그날 '부산항 잔교에는 고관 대작부터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나와 맥켄지 가족을 눈물로 떠나보냈다'고 신문들이 기록하고 있다. 맥켄지가 떠나고 3년 뒤 상애원은 폐쇄되고 일대는 병참기지로 활용됐다.

불과 70년 전의 일임에도 상애원은 마치 고대유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감만동 토박이들조차 몰은듯 고개를 가웃한다. 옛 상애원 자리에는 안내관 하나가

없고 항토지에서조차 자세한 언급을 찾기 힘들다.

까맣게 잊힌 상애원은 몇 해 전 맥켄지가 촬영한 사진 수 백 장이 호주의 유족에 의해 발견돼 한국에 전해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진더미 속에 당시 상애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진을 복원해 사진전을 가졌지만 부산이 아닌 경기도에서였다.

인간 사랑의 극치를 실천한 맥켄지에 대한 우리의 무심함이 안타깝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마우면서 서운한 이유이다.



부산항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28년만에 호주로 돌아가는 맥켄지 가족들. 다른 조선일보 기사(1938년 2월 20일자).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8. 7.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윤원기정형외과	문현동	병원급식조리사	1명	18. 7. 20. ~ 채용시	월급 160만원	051-644-8275
주식회사 씨티라이프	우암동	매장정리원	1명	18. 7. 20. ~ 채용시	월급 1,580,000원	051-625-2224
(주)서원로직스	감만동	경리사무원	1명	18. 7. 20. ~ 채용시	월급 160만원	051-624-3340
BW컨테이너 서비스	감만동	창고관리원	1명	18. 7. 19. ~ 채용시	연봉 2400만원 이상	055-381-7310
(주)덕민전기	문현동	내선전기공(과장급)	1명	18. 7. 19. ~ 채용시	월급 300만원 (상여금 250%)	051-644-6400
문현시티프라자 입주자대표회의	문현동	아파트전기관리원(소방특별검임)	1명	18. 7. 19. ~ 채용시	월급 3,110,000원	051-631-9921
희생식품(주)	대연동	정육원	1명	18. 7. 19. ~ 채용시	월급 170만원 ~ 300만원 이하	051-625-7404
주식회사 원엘씨	용호동	안내 접수원	2명	18. 7. 19. ~ 채용시	월급 168만원 이상	051-626-1199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인창요양병원)	대연동	병원급식조리사	3명	18. 7. 18. ~ 채용시	월급 190만원 이상	051-774-1095
제일조명	대연동	조명기구설치 및 납품운전원	1명	18. 7. 18. ~ 채용시	연봉 2300만원 이상	051-628-9644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8.>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한울림산악회	8/12(일)	영월 동강	010-9975-8688
	약천산악회	8/15(수)	포항 보령사계곡	010-4655-4370
	백호산악회	8/ 8(수)	하동 의신계곡	010-5621-4007
	금강산악회	8/ 5(일)	영동 석전계곡	010-3865-9051
	해월산악회	8/19(일)	거창 월평계곡	010-7154-3166
용호동	산이좋아산악회	8/26(일)	산형 백운계곡	010-6266-8525
	여남산악회	8/12(일)	산형 백운계곡	010-3855-6569
	용호산악회	8/26(일)	울진 불영계곡	010-6266-8525
	용사산악회	8/26(일)	남원 구룡계곡	010-2124-9329
	여명산악회	8/ 5(일)	담양 가마골계곡	010-2582-4254
감만동	연포산악회	8/12(일)	문경 대야산	010-3832-5971
	21세기산악회	8/12(일)	지리산 대성계곡	010-7563-1943
	용마산악회	8/12(일)	합양 월림계곡	010-2692-1170
	녹색산악회	8/26(일)	함양 부전계곡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8/19(일)	거창 송계사계곡	010-8287-1192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8/12(일)	지리산 백무동계곡	010-2902-8322
	원뿌리산악회	8/19(일)	지리산 금계봉길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8/ 5(일)	지리산 뱀사골	010-4035-3432
	문사산악회	8/12(일)	용추계곡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